

토석류 재해 가옥 보존 공원

시마바라반도에서 발생한 화산의 파괴력을 직접 볼 수 있는 이 공원은 섬나라 사람들의 소중한 추모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.

200년 전 시마바라를 덮쳐 그 광경을 영원히 바꿔버리는 파괴적인 분화를 일으킨 후젠다케가 1990년 11월 17일 다시 깨어났습니다. 분화는 다치바나완 지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그로부터 수개월, 수년 동안에 걸쳐 산은 여러 번 분화하면서 용암, 화산재, 그리고 가장 위험한 화쇄류를 방출했습니다. 그 위험성은 새롭게 탄생한 헤이세이신잔(1,483m)이 최종적으로 안정된 1995년까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.

화쇄류란 화산 분화 시 발생하는 고온 가스, 화산재, 화산암의 혼합물을 말합니다. 바위와 화산재 입자는 지면과의 마찰을 줄여 초고온 가스의 얇은 층 위에 구름을 형성합니다. 그 혼합물은 거의 액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과 분화 중 화쇄류는 엄청난 속도로 밀어닥치듯 산에서 흘러내립니다. 화산의 파괴력은 용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, 화쇄류의 위험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.

피해가 가장 멀리까지 미친 것은 1992년 8월 8일과 14일 이틀로, 폭우가 후젠다케 동쪽 토석물을 휩쓸고 내려가 평소 말라있던 미즈나시가와 하천 부지가 수몰되어 버렸습니다. 그 토석류는 강둑을 돌파하여 많은 가옥을 매몰시켰습니다.

이 공원은 수 미터에 이르는 잔해 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. 텐트 안에 전시되어 있는 3채의 가옥은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, 그리고 토석류에 의한 피해를 전시하기 위해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. 토석류가 덮쳤을 때 다행히 주민들은 이미 대피해 있었습니다.

1990년부터 1995년에 걸쳐 발생한 분화 이후 수십 년 만에 시마바라는 부흥했습니다. 미래의 화쇄류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미즈나시가와 강 상하류에 제방을 건설해 이후 분화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